

## 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## 상하이, 국제운송센터 건립으로 손보시장 발전 기대

□ 최근 중국 상하이(上海)에 국제운송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담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하이 지역 손해보험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.

-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<상하이 현대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국제금융센터 및 국제운송센터 건립에 관한 의견>에서 경쟁력 강한 금융기관 및 운송회사가 상하이 지역에 전문운송보험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.
- 국무원 발표가 나가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하이금융센터 및 국제운송센터 건립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, 상하이에서 보험회사가 화물운송보험 업무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함.

□ 상하이가 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항구물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상하이 보험시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을 보이고 있음.

- 항구물류 중심지로 연간 물동량이 수 억 톤 이상 되는 상하이는 현재 세계 60여 개 선박회사가 상하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화물, 선박 등의 임대차 및 운송업무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- 그러나 상하이 대부분의 보험업무가 진입장벽이 낮은 화물운송보험에 집중되어 있어 운송책임보험, 항구책임보험, 선박보험 등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보험상품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.
- 특히, 상하이 항공해상운송보험시장은 최근 관련 보험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및 전문인력 부족, 취약한 기술력, 보험금 배상 문제와 같은 국제상 관례와 불일치하는 자체 규정 등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기대치에 훨씬 밑도는 부진한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음.

(중국 국무원 홈페이지, 제일재경일보 6/16)